

西獨 大學의 特性 및 留學案內

金 鍾 英
(淑明女大 經營學科 教授)

I. 大學學制的 特性

1. 西獨 大學의 規模와 學制

「學問은 自由」라는 傳統的인 독일사람들의 생각은 오늘날에도 철저히 그 社會全體가 받들고 있다.

지난 15年前 독일에서의 大學生活를 돌이켜 볼 때, 정말 독일 대학생들은 흠족한 비와 햇빛에 마음껏 목욕하면 지라는 파라다이스의 智慧의 나무처럼 생각되었다.

여기에 지난날 독일 대학의 유학생들과 그 후 몇 차례 그곳을 다녀온 경험을 토대로 독일 대학의 特性과 독일유학에 대한 예비지식을 위해 記述코자 한다.

獨逸 大學은 명실공히 國立으로서 연방정부 및 州政府의 財政的 支援을 받고 있다. 1983年度版 휘셔의 세계연감(Der Fischer Weltalmanach)에 나타난 독일 대학의 統計的 近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1年度 聯邦政府, 州政府 및 教區의 교육투자는 약 800억 마르크(1DM은 약 300원 정도)를 지출했다. 그 중에서 주정부의 투자액은 약 570억 마르크에 이르렀다. 당해년도 대학생을 제외한 초·중등의 학생수는 3.5% 감소하여 890 만명을 헤아렸다. 그러나 겨울학기의 대학

생수는 112 만 1천명으로 증가하였고 그 중 69 만 9천명이 남학생이었다. 대학 초년생의 경우는 약 181,100 명이였다. 이에 대해 외국인 대학생수는 약 62,000 명에 이른다. 최근 교직원 학생수는 감소하여 약 19.1%에 불과하다. 전공분야별로 보면 경제학과 사회학이 295,400 명 언어학 및 문화학이 254,500 명, 공학이 203,100 명, 수학 및 자연과학이 170,200 명 의학이 83,400 명, 예술 및 예술학이 55,100 명으로 구성되었다. 1981년도 평균수학 기간은 12.3 학기에 이르렀다. 1980년도 대학의 고용상태는 315,437 명이면 이 중에서 85,234 명이 학문 및 예술관계 인원이다. 여기서 교수의 수는 28,220 명이였다. 1981년도 연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및 경제계 (Staat und Wirtschaft)는 415억 마르크를 별도로 조달하였다.

大學入學은 우리 경우와 달라서 특별한 入學試驗이 없고 아비투어(Abitur)라는 고등학교 卒業資格試驗 後 大學入學試驗을 치루어 합격한 후 그 성적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大學에 入學하게 된다. 따라서 그 성적이 좋지 못하면 자연히 경쟁이 심한 학과(예를 들면 의과 등)에는 어려운 것이다. 몇 개의 특수과목을 제외하고는 原則的으로 定員制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우리와 같이 일정대학에 입학하고 卒業하는 것이 아니라 學期別로 각자의 취향에 따라 他大學에서

도 수학 및 졸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뜻대로 대학 및 강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獨逸大學의 졸업은 약 12學期를 마쳐야 가능하다. 최초 4學期 동안 기초과목을 수강한 후 중간시험에 합격해야 그 다음 5學期 등록이 가능하며 8~12學期를 마치면 國家試驗을 치룰 수 있다. 이 시험에 합격해야만 졸업할 수 있고學位(Diplom)를 받게 된다.

대학학기는 여름학기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겨울학기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이다.

여름강의는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겨울강의는 10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다.

獨逸大學은 傳統的으로 그 권위가 대단하다. 이 점은 특히 독일에서 학위 取得이 어려운 뿐만 아니라 학위취득 후에도 教授資格(Habilitation)을 얻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명해진다. 대학에는 大學院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博士學位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졸업시험에 합격한 후, 학사취득 후 전공하려는分野의 지도교수를 개별적으로 選定하여 각종 세미나를 통해 지도를 받게 된다.

대학에서의 教授方法은 주로 演習, 講義, Seminar의 3가지 형태가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Hauptseminar(主要 세미나)는 博士課程의 학생들에게 중요하다. 여기서 교수는 일정한 테마를 學生들에게 주고 학생들은 이에 대한 조사 및 研究를 통해서 論文을 작성하여 제출한 後(發表도 함) 그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교수가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

2. 세미나의 권위와 大學의 浪漫

前述한 바와 같이 독일 대학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고 입학시험 및 대학선택 등의 문제가 없다. 따라서 입학하고 2年 後의 중간시험으로 인하여 基礎的 實力이 있는 학생에게는 얼마든지 더 공부할 기회가 마련되고 적성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科目으로 바꾸게 된다. 그 나머지는 학생 스스로가 학교를 물러나든가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와 같이 대학입학에비교사나 또는 고등학교 자체내에서 어떤 것

트라인을 두고 대학의 문을 좁혀 학생들의 사기를 위축시키는 일은 없다. 다만 학생수가 잦을 때 고등학교 졸업성적 順으로 입학이 허가되는 경우가 있으나 실력이 없는 학생은 언제고 밀려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알아서 입학한다.

대학졸업시험 應試者에게 특별히 부과되는 것이 단과대학마다 다소 다르나 대체로 담당과목 교수들의 세미나증서(Seminarschein)를 받아야 하고 제출한 卒業論文(Diplom Arbeit)이 통과되어야 한다.

세미나증서란 세미나에 얼마나 열심히 참석했으며 그곳에서 연구·발표한 記錄과 評點이런 것을 증명한 것이다. 비록 학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학교 曄국은 이것이 주요과목(시험과목)에 대해 2~5장 있어야 졸업시험 資格을 준다.

모든 세미나는 교수중심의 研究 및 發表의 학습단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우선 자유롭게 교수나 과목을 택할 수 있다. 과목을 고르다가 교수를 알게 되고 교수를 찾다가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학생과 교수 사이에는 재미있는 유대를 갖게 된다.

졸업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은 직장 구하기가 용이하다. 각 직장에서 쇄도해 온 청탁을 놓고 교수는 적절히 졸업생을 추천한다. 독일사회에서는 교수의 추천이란 어느 면에서나 最高의 권위를 갖고 임한다. 이와 같이 학문의 自由를 구가하는 이들의 파라이디스는 現實의인 면에서 충분한 양분을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독일 대학의 특성은

- ① 등록금이 거의 없으며,
- ② 연방정부나 州政府에서 막대한 경비로 학교를 충족히 지원하고 있고,
- ③ 각종 장학금이 있어 우수하고 生活이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되며,
- ④ 훌륭한 교수지도를 잘 받을 수 있고,
- ⑤ 학문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된 점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의 기숙사도 비교적 시설이 좋으며 저렴하다. 요즘은 대부분 남자가 공동으로 기숙하고 있으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 너무나 개방된 이성교제는 자칫

문란을 초래하기 쉽다.

교내외에서는 여러 가지 서클활동이 있다. 특히 政治活動이 활발한 것 같다. 전통적인 각종 축제의 밤과 카니발은 대학생들을 흥분과 낭만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가슴 설레이는 모임이다. 어떠한 모임이건, 서클이건, 그 나름대로 얻어지는 새로운 단면이 있으나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특히 우리 留學生들은 삼가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동차를 갖고 있다. 그들은 미니도 입고 맥시도 입고 자유롭다. 꼭 마춤복을 입지는 않는다. 다 떨어진 양복을 아무렇게도 얹게 걸치고 다니는 것이 예사다.

그들에게 모양내는 것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진다. 예를 들면 그들의 머리 모양은 대체로 길다. 특히 남학생은 장발인데, 자연스러운 멋과 이발소에 자주 가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 같다. 오히려 나의 말쑥하게 치켜 짝은 깨끗한 머리가 그곳에서는 시간과 돈을 들여 가며 촌티를 낸 쪽스러움을 자아내게 했다.

3. 大學生에 대한 各種 特惠

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혜가 있다. 전차·버스·기차의 할인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극장이나 오페라하우스에 갈 때에도 싼 티켓(5 마르크 정도)으로 비싼 좌석(20 마르크 정도)에 앉을 수 있는 우대를 받는다.

독일 대학의 放學은 여름방학, 크리스마스 年初의 방학, 봄방학 등 통털어 약 5~6개월 가량 된다. 이 동안에 밀린 공부를 하거나 외국여행을 즐길 수 있다. 학생들의 賃金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만일 과세되어도 연말이 되고 재무성에서 확인 계산이 끝나면 課稅額을 본인에게 돌려준다.

그 밖의 학교에는 Stutex가 있어 학생들은 불꽃구입, 애컨대 타자기, 계산기, 사진기 등을 싸게 살 수 있다.

또 학교내에는 학생들의 기숙사나 개인하숙을 알선하는 사무원과 사회보험 관계를 취급하는 사무원이 있다. 사회보험은 학생들이 학기 등록 때마다 약30 마르크(약 9천원) 정도를 지불하

는데 이것이 학교에 공식적으로 내는 유일한 돈이며 現在까지 登錄金은 완전히 면제되고 있다. (筆者의 留學時節에는 同金額이 45 마르크로 기억된다.)

학생들이 得病했을 때에는 아무 병원에서도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원은 물론 長期的 요양소에서 療養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치과에서 金齒를 할 경우나 금데안경을 할 경우, 그 治療費나 렌즈 값은 무료지만 나머지는 社會保障金 特典에서 제외된다. 즉 치료의 일부, 테의 일부만을 보조받을 수 있을 뿐이다.

학생들의 점심은 값싸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구내식당(Mensa)에서 충분히 해결된다.

대학 학생수는 학교마다 다르나 Köln 대학의 경우 지난 1982년도 겨울학기에는 거의 5만명에 이르렀으나 이 學校 Mensa는 이들의 허기를 무난히 解決했다. 이 중 외국인 학생수는 전체의 5%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대학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안다.

오늘날의 독일 대학은 한마디로 教授·職員·學生代表의 일정비율로 구성된 民主的 方法에 의해 운영된다. 그러나 傳統을 자랑하는 독일 대학도 急變하는 現代社會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곧 이 전통있는 파라다이스에도 꿈틀거리는 現代感覺의 胎動이 어떻게 適應되어야 할지, 研究授業 및 試驗制度 등의 重要問題를 包含하고 있는 研究改革(Studiumreform) 내지 大學改革(Schulreform)을 어떻게 단행해야 할지 큰 課題를 안고 있는 것이다.

지난날 극빈학생에게 지급되던 각종 장학금이 최근 대여장학금(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형식으로 바뀌어졌다. 이 제도를 改革하는 데 있어 BAFÖG(연방교육촉진법)가 진통을 겪었다.

최근의 大學改革의 一案으로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수학기간이다. 즉 실무진출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6학기 정도로 학업을 마치게 하고, 학문예로의 진출자는 4학기를 더 연장하여 다른 나라의 대학원 수준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에 6학기 정도의 실무진출자들의 학령은 16년으로서 <국민학교 4年, 김나지움(Gymnasium) 9年,

대학 3年) 우리의 대학졸업 학령과 동일하다. 독일은 학비부담이 적은 대신 생활비가 높은 편이므로 입국조건에 재정보증을 필수로 하고 있다. 또한 숙소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방값도 비싸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독일이 한국과 유사한 운명을 가졌으며 전통사회라는 점에서 留學하기에는 비교적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의 商業的, 物質的 思考方式과는 달리 傳統的인 純粹學問의 연구를 위해서는 소망스러운 곳이다. 따라서 학문연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정열만 있다면 獨逸留學이 그리 험준한 길은 아닐 것이다.

II. 留學에 대한 豫備知識

1. 外國人學生의 現況

1979~80年度 (겨울學期) 독일에서 가장 큰 Köln 대학의 경우 外國人 學生의 數는 2,062 명이다(表1 참조). 그 중 그리스 學生이 231 명으로 제일 많고 터키가 170 명, 美國이 115 명, 불란서가 107 명, 이란이 102 명으로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는 11 번째로 많은 63 명의 수준이었으며 이때에 日本의 留學生數는 67 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다소 많았다. 外國人 學生의 집

중學科는 철학부(인문철학부)로서 1,078 명이며 그 다음이 經濟·社會學部 369 명, 數學 및 自然科學部에 253 명, 醫學部 239 명, 法學部에 117 명의 順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留學生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분포경향을 나타냈으며 法學이 5 명, 醫學이 4 명으로 그 順位가 바뀌어졌다. 다른 大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리라 유추된다.

현재 우리나라 學生이 가장 많은 곳은 역시 Köln 대학이라고 알려졌다. 지난날 많은 留學生이 있었던 大學에는 현재 우리나라 學生이 거의 없는 實情이다. 그 이유는 그곳 當局의 特殊한 外國人政策 때문에 留學生 入學을 상당히 制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Köln 大學에서 가장 큰 規模를 자랑하고 있는 經濟 및 社會科學部에서의 지난 1950年 부터 1979年 사이 20年 동안에 나타난 外國人學生의 國家試驗合格(卒業試驗) 現況을 보면 西部·北部·東部 유럽 및 北美의 學生數가 154 명으로 가장 많았다.

全體 成績도 양호하여 不合格率이 5.8%로서 극히 양호했으며, 평균학기도 10.8로서 가장 적을 뿐만 아니라 平均成績도 3.1로서 높았다.

〈표 1〉 1979—80학년도 쾰른대학교 외국인 학생수

국가	의학	철학	수학 및 자연과학	경제 및 사회	법학	계
그리스	38	111	32	33	17	231
터키	18	73	31	41	7	170
미국	4	62	3	42	4	115
불란서	2	89	3	12	1	107
이란	12	58	20	11	1	102
인도네시아	29	34	13	21	1	98
네델란드	6	22	9	20	13	70
오스트리아	9	24	16	13	6	68
일본	—	50	1	12	4	67
영국	1	47	3	8	4	63
한국	4	31	6	12	5	63
스페인	4	40	6	6	4	60
벨기에	4	18	7	13	6	48
유고슬라비아	6	25	7	4	1	43
폴란드	—	32	4	5	1	42
이탈리아	6	24	2	1	6	39
계	239	1,078	253	369	117	2,062

자료 : Mitteilungen 1-1980, Universität zu Köln, p.9에서 정리한 것임.

이들의 1次應試合格率は 77.9%, 2次合格率は 20.0% 3次合格률이 2.1%였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 地域의 학생의 경우는 그동안 72명이 배출되었으며, 不合格率は 13.9%, 合格者 平均成績은 3.3점으로 낮은 편이고, 學期數는 11.7 학기로 긴 편이다. 대부분의 留學生은 本國大學에서 卒業했거나 또는 어느 程度 수 학하였음을 여기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1次 응시 합격률은 64.5%, 2次는 27.7%, 3次는 7.8%였다. 물론 이 통계는 연령별, 성별 및 國家別로 나타나지 않았고 또한 1972年부터는 中間試驗이 자리잡혀 學業의 계속 여부를 판 가름하는 役割도 하였기 때문에 學則改革의 여 러 가지 相互作用效果가 여기에 分析된 것은 아 니다.

대체로 볼 때 學生數에 비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시아지역의 학생들 성적은 다른 지역 에 비해 다소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外國人 留學生들이 졸업한 후에도 계속 독일 에 잔류하는 경우가 많아 연방정부와 大學 當局도 이 問題에 대해 큰 고민을 안고 있는 것 이다.

2. 장학금 지급관계

독일에서는 연방정부·州政府·공공단체 등의 教育에 대한 막대한 投資로 학생들의 부담은 거의 없으며 衣食住의 生活費만 있다면 유학하는 데 경제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여기에 유학생에 대한 중요 장학금 몇 가지를 들면 대개 다음과 같다.

(1) Humbolt 장학금 : 학자 및 연구원을 초빙 하는 케이스로 일반 留學生에게는 해당이 안된 다.

(2) DAAP 장학금 : 독일대사관 문정관이 관 장하여 各 分野別로 약간의 학생을 선발한다. 주로 상당한 수준의 독일어 實力이 요청된다. 이 장학금은 독일정부의 대외정책과 직결되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 그 혜택이 상 당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3) 독일문화원(Goethe Institut) 장학금 : 독 일문화원에서 관장하는 장학금은 본래 독일의 문화정책의 一環으로서 주로 독일어교사를 대상

으로 하여 同 文化院에서 독일어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 밖에도 독일국민연구장학금(Studienstiftung des deutschen Volkes), 신교장학금(Evangelischen Studienwerk Villigst), Cusanuswerk 장학금, Hans-Böckler 장학금, Fritz-ter-Meer 장학금, Friedrich Ebert 장학금, Friedrich Naumann 장학금, Konrad-Adenauer 장학금, Hartmann 장학금(醫學徒들에게 지급), Otto Benecke 장학금, Rhein Stahl 장학금, 독일 과학자를 위한 장학연합회 장학금, 화학공업연합회 장학금, 독일연방 우편국 장학금, 독일 국방장관의 연구진흥장학금, Hoechst 주식회사 장학금, Gerda Henkel 장학금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주소는 Universität zu Köln, Studienführer, 1982/83을 參照할 것).

上記 장학처와의 교섭은 全的으로 개인적인 노력에 달려 있으며, 일반적으로 볼 때 지도교수의 좋은 평가를 받고 추천서(Gutachten)를 받으면 그 申請이 가능하다. 물론 장학금을 못 받는다 해도 독일 대학은 등록금이 全無하므로 미국보다는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3. 留學의 試圖

獨逸留學은 美國에 비하여 그리 복잡하고 까다로운 過程이 없다. 대체로 볼 때 外國留學生의 資格條件은 우선 18세 이상인 학생으로서 獨逸 大學에 입학할 수 있는 入學許可書(Zulassung)를 所持하여야 한다(이 許可書는 書信으로도 得할 수 있음). 여기에 독일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財政保證이 완전하며, 學業始作前 에 확정된 專攻分野에서 基本實習 내지 공부한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가 그곳의 Gymnasium (9年制 중·고등학교에 해당됨) 졸업자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일은 없다. 그것은 이미 언급한 대로 그곳이 13학령 인테 비하여 우리는 12학령이 되기 때문에 자명한 것이다.

대학입학 許可를 위해서는 그곳「大學海外處」(AAA=Akademische Auslandsamt)에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직접 入學許可申請을 하면 된다.

獨逸의 各大學에 대한 각종 안내서는 독일 문화원, 또는 각 대학에 비치되어 있다.

입학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독일어 이력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독일어실력 확인증명서, 학교 또는 교수 추천서(경우에 따라), 건강진단서, 사진 등을 동봉해야 한다.

外國留學生에 대하여 별로 까다로운 條件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독일 대학은, 申請學生의 結核사유가 없고 그곳의 형편이 許容하는 한 입학허가서를 발송할 것이다.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 비자를 신청하여 독일유학이 이루어진다.

독일 대학 내에는 대개 外國留學生을 위해서 별도의 어학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독일어가 부족한 학생은 일정기간 여기서 철저히 독일어 공부를 하며 그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비로소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 그러므로 大學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이 실시하는 수준 높은 독일어 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4. 大學海外處(AAA)의 事前 Orientation

여기에 최근 Köln대학 당국이 外國留學生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에서 공부하려는 외국인들은 도착 후 가능한 한 조속히 「大學海外處」에 學制 및 學業에 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야 한다. 독일에 오기 반년전 내지 늦어도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개별 면담이나 혹은 편지왕래를 통해서, 지원자의 학력수준을 고려했을 때 ① 어떻게 학업희망이 성취될 수 있으며, ② 또 독일 대학에서의 학업 가능성이 과연 실현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받아야 할 것이다.

유학 지원자들의 계획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①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입학허가서의 제한 :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은 6%, 其他學部의 입학허가는 8%를 외국인을 위해 마련해 놓기 때문에 이 범위를 넘을 경우 입학이 불가능하다.

② 定員 : 독일어 어학코스의 定員과 대학 강의의 한정된 수용력에 의해 입학허가가 제한된다.

③ 지원자의 불충분한 증명서 : 대학에서는 정확한 本國의 증명서를 대학입학자격에 중요한

요건으로 여기고 있다. 물론 이 증명서는 전공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그것은 특정한 대학과정에 계속 적용될 것이다. 그 외에도 대학에서는 대학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데 있어 성적증명서가 고려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모든 개별 경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유학생은 「대학해외처」를 통해 조언을 구할 수 있다. 학위과정의 입학허가를 받으려 할 경우, 그 전제조건은 當地의 대학졸업 수준이 獨逸 大學 졸업 수준과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경우란 아주 드물다. 이 외에도 지원자는 개별적으로 학위논문 지도교수(Doktorvater)를 구하여야 한다. 이 복잡한 문제 역시 우선 「대학해외처」에 의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지 독일어를 배우기 위한 입학허가는 불가능하다. 전공공부를 위한 입학허가가 이루어졌을 때에도 보통 독일어 코스의 한정된 수용능력 때문에 이미 유학전에 어학 실력을 쌓아 둔 경우가 훨씬 유리하다. 물론 독일어 실력이 일반적인 입학허가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더 많은 것이다.

專攻工夫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독일어 어학실력증명을 위한 시험」에 합격하거나, 아니면 이미 증명된 어학 실력에 의해 대학에서의 독일어 시험이 면제되어야 한다.

② ①항에 해당이 없으면 독일 대학에서 공부하려는 외국인지원자들에게 부과하는 자격검정고시에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이 시험을 준비하려면 국립의 Studien Kolleg을 방문하여야 한다. 전자 혹은 후자의 시험을 치를 것이냐의 문제 결정은 이미 제시된 본인의 증명서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독일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學業成果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어학코스를 밟아야 한다. 수업기간 동안에 외국학생들은 모든 문제를 「대학해외처」를 수시로 방문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곳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학업을 위한 조언을 행할 뿐만 아니라 독일의 관청문제와 학생의 본국과의 문제에 대하여도 여

러모로 도와주고 있다. 특히 외국학생을 위해서 이곳에서는 상주 변호사도 두고 있다.

그러나 「대학해외처」의 사업도 특정한 한계를 명확히 짓고 있다. 즉 학생들의 숙소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돕는 노력은 할 수 있으나 Köln 市の 오늘날과 같은 주택공급시장의 파국적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학업을 위한 재정보증은 개별 학생의 일이며 모든 지원자들은 입학허가를 받기 전에 독일에서 여하한 재정적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번 언급해야 한다.

5. 留學生 指導問題와 對策

현재 西獨에는 (특히 Köln 大學의 경우) 많은 유학생이 修學하고 있다. 지난 1960年代 및 70年代 初에 비하여 지금은 거의 10倍 以上이 증가 되었으며 (현재 約 4百名으로 推定됨), 이와 같은 數的 增加의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되리라고 展望된다.

그러나 現在와 같은 우리 나라의 留學制度 및 實情에서는 數的 增加가 質的 評價에 다음과 같은 큰 問題點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1) 制度上으로 볼 때 지난날 비교적 엄격했던 海外留學生 資格試驗은 유학생들의 수적 증가를 抑制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선발로 인해 주로 實力이 잘 갖추어진 學生들만이 유학할 수 있어 유학생들의 學業成果가 높은 評價를 받았었다. 그러나 現 制度下에서는 누구나 희망하는 대로 海外에서 留學할 수 있어 基礎實力을 구비치 못한 留學生들이 적지 아니하다. 결과적으로 좋은 成果를 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全體 韓國留學生들의 이미지를 損傷시킬 것이 매우 우려된다. 이에 海外留學生에 대한 現制度의 補完策이 要請된다.

(2) 留學前 基礎語學實力의 補強

大學內 또는 一般私設語學機關에서 유학회망자들로 하여금 一定期間(3個月 내지 6個月間)의 코스를 受講케 하여 一定水準의 test를 거쳐 合格與否를 判定케 할 필요가 있다. 물론 實力이 우수한 자에게는 언제나 資格試驗에 응시케

하여 留學의 길을 일찍 열어 주어야 한다. 一定水準의 語學實力은 一般生活뿐만 아니라 研究에도 絕對必須要件으로서 누구나 基本的으로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3) 낮은 異國에서 또는 生活文化가 다른 곳에서 適應하기에는 (물론 個別留學生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이와 같은 점을 미리 留學生들에게 周知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地域別 또는 國家別 그룹으로 10日 내지 15日間의 집중적인 Orientation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專攻別로 Orientation 그룹을 나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 期間의 2/3는 여러 가지 風物을 익히고 그곳의 歷史와 地理 및 文化에 대한 知識을 위해 割當되며, 1/3는 slide film (영화) 등을 통해서 시청각적으로도 Orientation을 한다면 效果가 클 것이다.

(4) 留學生數가 30명 以上되는 都市에는 가능한 한 留學生 指導教授를 수시로 파견하여 이들을 지도하고 個人的인 問題 및 苦惱를 解決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우리나라 留學生들의 資質을 높이고 所定의 目的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達成하여 좋은 留學成果를 갖는다면 이는 우리나라 學界 및 社會文化發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5) 留學을 마친 學生들에 대하여도 조직적으로 귀국을 돕고 또한 立場을 알선하여 고귀한 人力이 他國에 流出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귀중한 人력을 조국의 教育계 및 실무계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시킴으로써 우리나라에 크게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重要하다. 지금까지는 각 대학에서 어느 정도 scout 형태로 그들을 산발적으로 유치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고급 人력의 충원계획을 각 부서 내지 대학으로부터 받고, 그에 대한 공급을 알선하는 과업을 이 기구가 전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